

농치기 아까운 이달의 책



● 갈등 속에서 찾은 변화의 지혜

《역사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조선 사람들》

최완기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368쪽 | 값 28,000원

“조선 왕조가 성립된 것은 이성계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고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것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 온 역사다. 여기서 민중은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된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조선 사람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역사관에서 탈피해 사회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갈등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우리 역사에서 전환기의 한 부분인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당시 사람들이 변화라는 역사적 과제에 어떻게 갈등하고 고뇌하였는가를 살펴본다. 가령 조선 후기 농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조선 후기의 농촌 사회는 지배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토대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탈바꿈해 갔다. 피지배층 스스로의 슬기와 역량이 그 원동력이 있었다. 농민들은 주로 작은 규모의 보를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서 물을 확보하였고 18세기 말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수천 개소에 이르렀다.

지배자는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는 데 힘을 쓰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체제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민중은 그 사회의 토대로서 사회 모순을 절실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혁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조선 후기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변화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주목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지 살핀다. 또 “갈등 속에 삶이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움직임을 진솔하게 파악하고,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역사성을 추출해 우리 사회의 청사진과 상황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오늘의 지성인들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지배층 중심의 역사학을 반성하고 비판한다.

신동섭 기자

● 102가지 황금원전이라는 특별한 지식을 읽다

《지식의 원전》 존 캐리 편저 | 이광렬 외 옮김 | 바다출판사 | 822쪽 | 값 28,000원

매끈한 결과만을 정리한 다이제스트판 지식은 흥미 없다. 우리는 때때로 알고 싶다. 태초의 지식을 맞닥뜨렸을 때의 떨림, 정제되고 가공되지 않은 낱것의 감각, 역사가 되기 전의 역사를 말이다. 그 욕망을 단번에 해소시켜주는 한 권의 책이 있으니 바로 《지식의 원전》이다. 《지식의 원전》은 ‘다 빈치에서 파인만까지’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 르네상스 이후 500여 년 간 지식의 역사 속에서 가려진 ‘최초의 원기록’ 들을 담고 있다. 후대 과학자들의 설명도, 과학 저술가들의 재해석도 끼어들지 않은 순수한 원기록에는 원리를 궁금히 여기게 된 상황, 눈물겨운 시행착오 과정, 그때마다의 정신적 단상 등이 마침내 발견한 ‘귀한 지식’ 과 함께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4개의 행성을 발견하고, 지난 두 달 동안 그들의 위치와 움직임, 그리고 변화의 정도를 관찰하였다”며 경이적인 천문관찰의 성과를 기록하는 갈릴레오, “그 녀석은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가끔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며 남성 성기에 관한 촌철살인의 단상을 기록하는 다 빈치, 총알 관통으로 위뿔에 부상을 입은 병사를 치료하다 직접 음식을 넣어 위의 소화기능을 연구해 보았다고 자랑스레 기록한 윌리엄 버몬트, 리처드 파인만은 제공 받은 검은 안경을 쓰지 않고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을 맨눈으로 본 날의 감격을 전한다.

《지식의 원전》은 다 빈치에서 파인만까지, 원자 한 개에서 우주 행성까지, 과거 빅뱅이론에서 인류 미래의 제시까지, 귀하다 귀한 황금원전 102개를 품고 있다. 책의 두께는 무려 800페이지가 넘는데, 이 책처럼 많은 페이지가 미덕이 되는 책도 드물 것이다. 어려운 원리를 문학적인 비유법과 유려한 문체에 담아, 읽는 이를 묘한 매력에 빠져들게끔 하는 편저자 존 캐리의 덧글도 읽는 맛을 더한다.

박용두 기자



● **해답은 '오래된 미래' 안에 있다**

《강의》신영복 지음 | 돌베개 | 516쪽 | 값 18,000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나무야 나무야》로 우리시대 반듯한 지성으로 우뚝 선 신영복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가 고전 텍스트를 들고 찾아왔다.

시경 서경 초사 주역 논어 맹자 노자 장자 묵자 순자 한비자 등의 동양고전을 읽는 관점은 '관계론'이다. 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동양적 가치는 추상적이거나 초월적인 존재에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맺는 관계 속에서 구해진다. 인은 관계론의 심층적 의미를 잘 설명해 준다. 인은 인+인, 즉 이인+인인 의미로 '인간관계'를 뜻한다. 인간을 인간人間, 즉 인+인+인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해 나의 자식과 남의 자식, 나의 노인과 남의 노인을 함께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 교수가 동양고전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현 시대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패권적 구조, 즉 서양문화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수많은 병폐를 낳았기 때문이다. 서양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존재론'은 동양의 '관계론'과 대조되는 바가 많다. 자본주의의 논리인 존재론이 지배, 흡수, 합병, 즉 동등이라면, 화해는 자기와 다른 가치를 존중하며 타자를 흡수, 지배하려 들지 않는다. 이 관점으로 보면 타자는 없고 문명과 문명, 국가와 국가 간의 모든 차이는 존중된다. 이번 책의 골자는 이같은 동의 논리를 화의 논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에 이르는 춘추전국시대의 사상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강의는 고전 텍스트에 방점을 찍으며 그것은 곧 '오래된 미래'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미래로 가는 길은 오히려 오래된 과거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 시대 참 지성의 충고다.

김청연기자



● **전쟁, 여성의 언어로 해석하다**

《전쟁과 여성》김현아 지음 | 여름언덕 | 328쪽 | 값 12,000원

'열린 네트워크 나와 우리'를 설립해 이주노동자, 장애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 소수자들을 위해 연대활동을 펼쳤던 저자는 2002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책갈피)을 통해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문제를 제기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에 낸 《전쟁과 여성》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대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끌어낸 책이다.

《전쟁과 여성》은 1999년부터 4년간 베트남 답사를 바탕으로 일산, 마산, 대구, 부산 등지에서 한국전쟁을 경험한 여성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엮여졌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속의 여성, 기억, 재현'이라는 부제로 남성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전쟁을 여성의 언어로 풀어냈다. '공식적 기억'과 '비공식적 기억'을 뒤집는 시도다.

당시 전쟁을 겪은 여성들의 슬로건은 '언제나 어디서나'였다. 전쟁에 참여한 것은 물론, 전시戰時 중에도 밥을 하고 자식을 키워야 했으며 남편과 자식을 잃고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했다. 저자는 "전쟁에 관한 한 여성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가부장제의 이중 억압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수많은 여성들은 온 몸에 새겨진 총탄흔적으로, 고엽제로, 불구인 몸으로 전쟁을 기억하고 있었다. 책 출간을 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껏 내놓지 못한 말들을 기록하며 언젠가는 책으로 내리라 결심한 것이 《전쟁과 여성》이다.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여성의 경험이 어떻게 부정되고 왜곡됐는지를 파악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여성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평화를 이룩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홍이현기자